

石窟庵의 前室

申 榮 勳 - 文化財委員會 專門委員

吐含山の石窟庵이 비상 사태에 돌입한 것은 1960년이였다. 高壓水蒸氣로 세척한 월성교육청의 사업으로 石材가 심하게 손상되었다는 世論이 비등하게 되어 조사단이 파견되었다.

日人들은 石窟庵을 완전 해체하였다가 다시 세운다. 당시 鐵道를 놓는

일을 전공한 日人技師가 이 공사를 책임맡았다. 이제 그 사용에 약간 익숙한 정도인 시멘트공법으로 터널을 구성하는 일이 그의 분야이였다. 석굴암 재건에 이 터널공법을 썼다. 石材들레에 시멘트를 싸발라 고착시킨다는 소박한 방법으로 시공하였다. 1차 공

사이였다. 前室을 프렛트홈의 덮개같이 아치형으로 씌우려던 당초의設計이외는 생각대로 시공하였다. 그러나 곧 문제가 야기되었다. 콘크리트와 石材가 부착된 틈새에서 흰물이 흘러나왔고 괴임한 鐵片의 산화로 붉은 물도 흘러 내렸으며 시멘트의 알카리성 毒素가 화강암 長石質을 파괴하여 越冬하면 石面의 모래가 부스러져 내렸고 窟內는 심한 漏水현상이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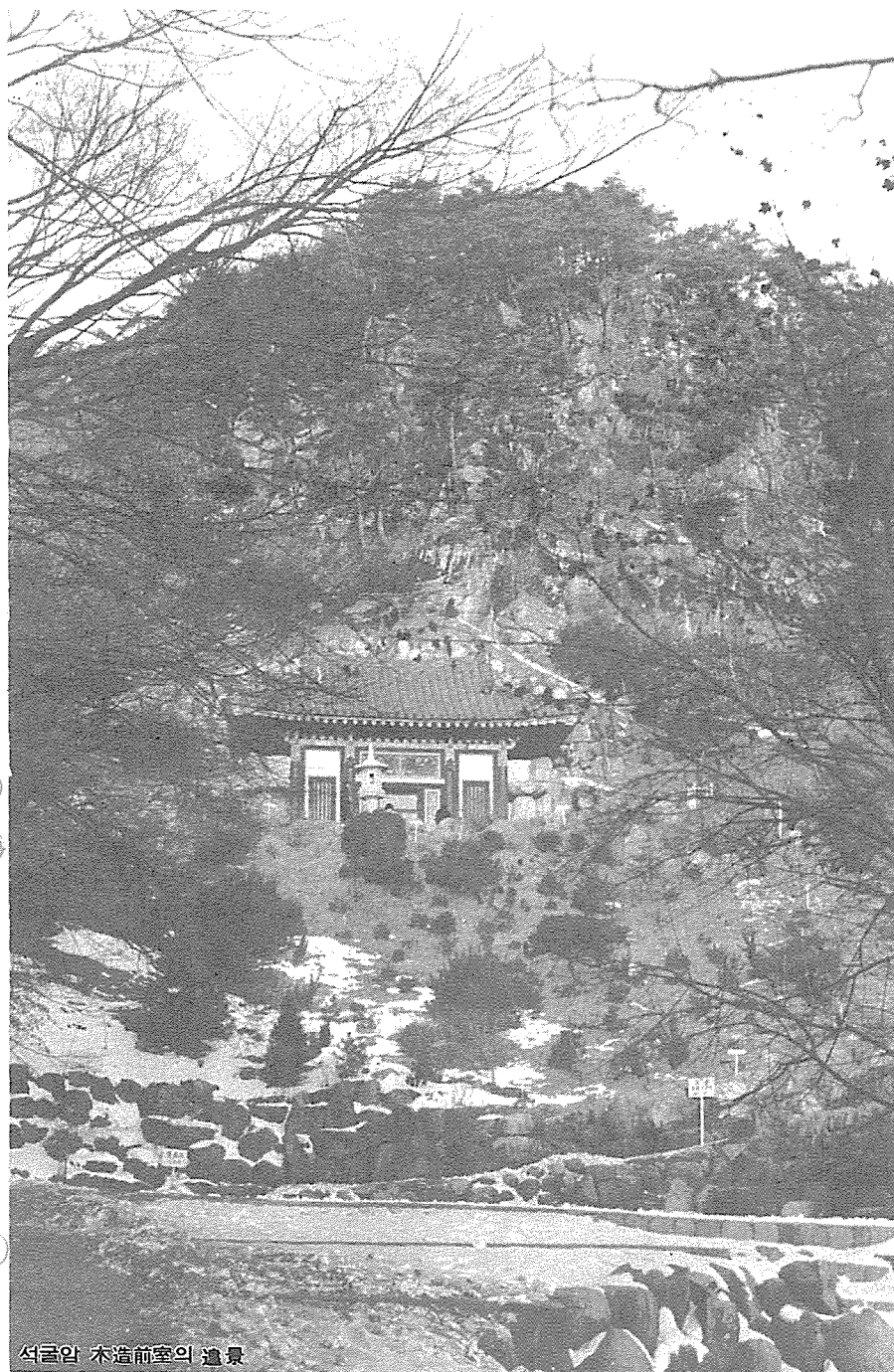
日人들은 2차 공사를 실시한다. 補完工事を 하려는 목표이었으나 아스팔트핏치로 방수하고 배수구를 따로 내는 일 정도이었다. 이미 굳은 콘크리트를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이다. 3차의 보완공사도 실시되었으나 효과는 없었다.

石面에 結晶되는 알카리성분을 씻어내고 白花現象을 씻어내기 위하여 日人들은 高壓의 스팀장치를 한다. 그것으로 씻어낸다는 착상이다.

광복 이후 이 스팀으로 씻어내는 작업을 시험해 보았다. 마침 PEN 클럽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되고 그 외빈들이 석굴암을 순방한다는 계획에 대비하여 월성군 교육청에서는 스팀장치를 가동하여 씻어내리면서 딱딱한 솔로 문질러 먼지를 털었다. 이것이 치명상을 입혀 조각부분이 크게 훼손되었다. 세론이 분분해짐에 따라 문교부는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이 병의 치료 처방은 前室을 덮어 보호하고 콘크리트에 水分을 공급하지 않도록 해야된다는 결론이 내렸다. 前室設置가 계획되었다. 林泉선생이 木造前室의 설계를 맡았다.

林선생은 1962년까지 국립박물관에 봉직하고 있었다. 學芸官의 직위이었다. 그 해에 林泉古建築設計事務所를 설립하고 독립해 나가서 自營의 業을 시작하였고 석굴암 전실의 설계는 그의 중요한 업적이었다.

나는 林선생과 1955년에 상봉한다. 국립박물관에서이었다. 박물관 普及



석굴암 木造前室의 遺景

課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출근하면서 庶務課 소속의 임선생과 相面하였다. 그는 출퇴근이 일정한 분이 아니었다.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아서 자상하게 빙거나 할 기회가 없었다. 1955년에 그분은 南漢山城의 建物補修와 丹青을 하는 일을 맡아하고 제서서 사무실 출근은 어려운 형편이었다.

임선생은 丹青의 경우는 직접 관여하기를 즐겨하였다. 日本 東京 美術學校를 다녔던(1927~29) 청년시절의 재능이 그로 하여금 그 일에 깊은 흥미를 갖게 하였다. 그는 東洋學科에 재직하였으나 開城青年會議所 부근에 살던 親知들의 기억으로는 洋面도 즐겨 그리는 美術徒이었다.

임친 청년은 집이 가난하였다. 방학 때면 苦學을 해야 학비를 조달할 수 있을 정도이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학교를 중퇴하고 1933년에 開豐郡 觀音寺 大雄殿을 보수하는 일에서 丹青을 모사하고 채색하는 面工으로 취직하였다. 이 일이 평생을 고건축 보수에 전념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

1934년 3월까지 觀音寺 대웅전의 일을 끝내고 1935년에는 黃海道 黃州郡 成佛寺 極樂殿과 應眞殿 보수공사의 壁面模寫와 채색조사를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35년 9월에는 全南 求禮郡 馬山面의 華嚴寺에 가서 覺皇殿 重修工事의 壁面模寫와 彩色을 조사하는 囑託으로 일한다. 공식직원으로 채용되었다. 당시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높이 평가되어 상당한 급료를 받게 되었다.

1937년에는 平壤 大同門과 練光亭 重修工事의 彩色調査員으로 참여한다. 1938년 11월부터 39년 1월까지 全南 康津郡의 無為寺에 가서 極樂殿 補修工事의 壁面模寫 및 彩色調査員으로 참여한다. 이 작업은 일부 진행하다가 중단된다. 2次大戰으로 예산투입이 어려워진 총독부는 작업을 중지시켰던 것이다. 그는 재차 화염사 각황전에 파견된다. 해체작업이 끝나고 조립공사도 진척되었으므로 최후로 단청하는 일이 남았어서 그리로 파견된 것이다. 1939년 4월까지 작업하였다. 39년 5월부터 9월까지 春城의 淸平寺 極樂殿의 重修工事에 참여한다. 이 건물은 그후 6.25 때 불에 타 이제는 볼 수 없는 법당이 되었다. 이

극락전은 옷을 칠하고 단청을 한 집으로 유명하다. 丹青으로는 조선조 최고급의 수준이었다. 평생을 두고 임선생은 이 법당의 단청에 대하여 많은 기억을 슬회하곤 하였다.

평소에 별로 말이 없는 과묵한 분이지만 약주가 거나해지면 당신의 경험을 털어놓는 이야기가 줄이어 밤이 지새는줄 모를 지경이다. 後學들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약주 대접을 하곤 했었다.

1940년엔 3월부터 10월까지 成川의 東明館 降仙樓의 중수공사에 참여한다. 壁面 및 彩色調査員의 자격이다. 40년 11월부터 43년 1월까지 金剛山의 長安寺에 가서 四聖殿 중수공사를 한다. 이 일을 끝내자 곧 瑞山郡(忠南)에 가서 43년 2월부터 11월까지 開心寺 大雄殿 공사에 종사한다. 이 대웅전에는 白衣觀音菩薩像 등의 벽화가 있어 模寫하고 곧이어 修德寺 大雄殿으로 가서 벽화를 모사하였다. 日人들이 그 모사품을 일본으로 갖고간 사이 光復을 맞는다. 두 건물의 벽화는 이 와중에서 탈락되고 모사한 자료는 일본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애석한 일이다. 수덕사 벽화는 광복 이후에도 절에 남아 있었으나 일본인을 증오하던 스님들이 벽화편들을 지저분하게 보아 쓸어다 버리고 말았다. 다시는 벽화를 볼 수 없게 되고 말았다. 겨우 임선생이 촬영해 둔 희미한 흑백사진이 있어 후에 국립박물관에서 간행하는 『美術資料』에 소개될 수 있었다.

1945년 10월에 국립박물관 研究課의 美術圖案士라는 직함으로 美軍政廳의 발령을 받는다. 美軍政廳은 承繼를 위하여 日人 1名을 박물관에 남아있게 하였다. 文化財保存과 조사·발굴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要員養成을 위촉받았다. 임선생의 천부재질로 遺物實測의 기술이 인정되어 美術圖案士라는 미묘한 직함을 받게 되었다. 이 때 측량법과 실측법을 배웠다. 그간에 重修工事에 참여해 온 경력이 바탕이 되었어서 이 방면에는 국내의 제 1 인자가 되었다.

1946년에 국립박물관은 경주에 가서 壹杆塚와 銀鈴塚을 발굴한다. 사실상의 책임자로 일을 하면서 측량과 유물실측을 전담하였다. 다재다능한 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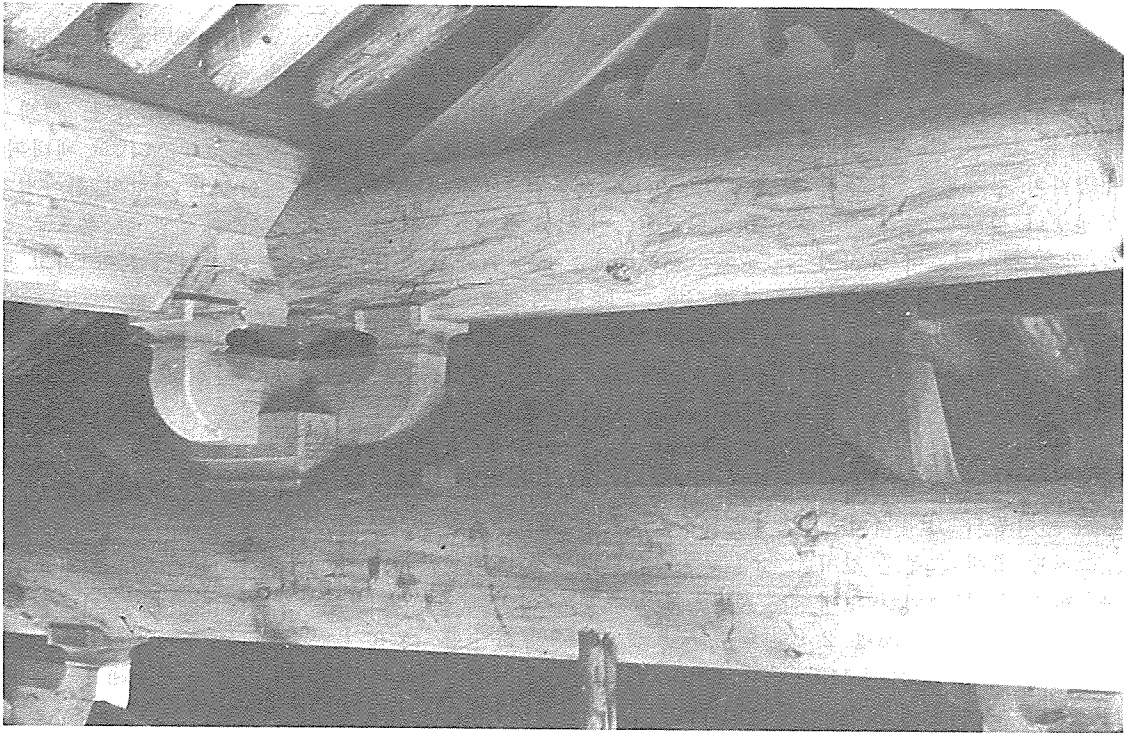
씨가 발휘된 첫사업이었다. 그의 실력은 유감없이 발휘되었고 큰 평판을 받았다. 이듬해 47년에는 開豐郡의 法堂坊 壁面古墳의 발굴이 있었다. 李弘植·崔淳雨·黃壽永·秦弘燮선생 등과 함께 관여하여 측량·실측뿐만 아니라 벽화의 모사까지도 도맡아 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다.

1947년 7월에는 南朝鮮過渡政府에서 국립박물관의 博物監으로 발령받는다.

47년엔 경주 佛國寺의 大雄殿補修가 있었다. 林선생이 설계하고 施工을 監督하는 작업이었다. 監督官이란 직책을 처음 맡는 것이지만 보수공사를 눈여겨 온 경력에서 낯설지만은 않았다. 壁面와 丹青에 이어 木造의 工役까지 그의 활동범위가 증대된 것이다. 이후 林선생은 국내 중요건물 보수공사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가 된다. 당시로서는 이 방면의 유일한 분이어서 누가 대신 그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임선생은 틈이 있으면 그림을 그렸다. 1947년에는 檀園이 그린 六卷의 陵行圖를 模寫하였다. 또 進饌圖도 모사하였다. 이 그림은 당시 제일급의 호텔이었던 半島호텔에 진열되었다. 그의 작품은 지금 구하기 어렵게 되었다. 遺族들이 보관한 山水圖 1폭과 文樣案을 만들기 위한 草稿(林선생의 長男 林永周가 최근에 방대한 문양집을 간행하였다.)가 있는 정도이다. 模寫한 作品으로는 修德寺大雄殿壁面·別面·丹青模寫·無爲寺極樂殿 壁面 및 丹青模寫·南漢山城 鍊武館 丹青模寫·淸平寺極樂殿丹青模寫·成佛寺極樂殿과 應眞殿의 丹青模寫·成川東明館의 丹青模寫·公州 宋山里古墳(百濟)의 벽화모사 등이 그의 대표작이다.

林선생의 模寫法은 유별나다. 오래되어 퇴색하고 剝地(박지,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감)된 부분, 비가 새면서 씻어내린 흔적, 뚜렷하거나 희미한 상태까지를 똑같은 色調로 한껏 그대로 모사하는 재주를 부렸다. 入神地境이라고 감탄할 경지에 도달하여 있었다. 모사하는 곳에 가서 나도 實見한 바이지만 묘사할 대상이 있는 곳에 화폭을 마련하고 東洋面專攻에서



석굴암 木造前室의 内部架構

익힌 수법을 발휘하여 한지에 그림을 그리는데 그 정확함과 빠른 속도에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

1948년에 開豐郡의 興王寺址에 가서 開城博物館員들과 함께 寺址發掘을 한다. 측량과 실측을 담당한다. 그해에 忠南 長谷寺에 가서 보수공사 감독관 업무를 수행한다. 그해에 景福宮 보수공사도 맡아 하였다.

1949년에는 水原의 八達門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한편으로 敬天寺十三層石塔의 보수를 실시하였다. 敬天寺塔은 日人이 盜取하여 일본에 搬出하였던 것을 輿論에 따라 우리나라에 다시 옮겨온 것인데 화가 치민 日人들이 마구 다루어 크게 파손을 입고 景福宮 勤政殿 廻廊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것을 조립하여 再建한다는 방침에서 龜裂된 부분은 접착하고, 깨어진 부분은 보충하고 없어진 부분을 정리하여 조립하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申尚均씨와 함께 조각 부분은 조각해 보완하고 건축부분은 포작·처마 등을 보충해서 완성시켜 나가니 탑의 조립이 끝났을 때에는 일견해서 어느 부분을 수리하였는지 모를 지경이 되었다. 지금 경복궁 學術院 건물 앞의 탑이 그 때에 세워진 것이다.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보수시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나 일부분에서는 약간의 약점을 들어내고 있다.

6.25 때 불탄 晋州의 축석루 재건 구역이 착수된다. 1950년의 일이다.

監督官으로 참여한다. 晋州市民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중에 工役이 完成되었다.

51년에는 世宗路의 記念碑閣을 보수하였다. 52년에 국립박물관의 學藝官에 보직되었다. 53년에 普信閣, 55년에 南漢山城, 56년에 無爲寺 極樂殿 중수공사를 실시한다. 일인들이 덧집 짓고 시작하다 두고간 일을 결국 林선생이 도맡아 끝을 내어야 할 입장이 되었다. 이 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요 건축물을 해체 중수한 첫사업이어서 여러면에서 추목된 것이었다. 林선생은 공사감독뿐만 아니라 壁畵와 丹青模寫의 일도 兼行하였다. 56년엔 濟州 觀德亭의 보수도 있었고 공사감독차 제주에 한동안 머물렀다.

이 무렵에 나는 군대에서 제대하고 국립박물관에 복귀하려 하였으나 金載元館長은 허락하지 않았다. 林선생의 권유에 따라 그분의 助手가 되어 設計書의 작성, 현장에서의 기록보존, 실측·측량보조원 노릇을 하게 되었다. 슬며시 그렇게 되고 말았다. 그림 그리는 분들이 그런지는 몰라도 林선생은 글 쓰는 일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 6.25 전후 애써 모은 古建築의 用語들을 정리하여 用語集을 만들 때도 尹武炳선생에게 그것들의 의

의미였을 정도이다. 이 일은 잘못되어 박물관에서 用語集을 간행하면서 林泉이라는 이름은 빼어버리고 말았다. 林선생의 이 성향은 조수가 글을 쓰고 자료를 챙기고 하는 뒷바라지를 맡아해야 하였다. 조수가 생기더니 林선생 제출서류가 깨끗해졌다는 문교부로 부터의 칭찬 덕분에 나는 더 없매이게 되었다. 즐거운 조수의 일이라는 하였지만 그분은 내게 수당 주는 일을 늘 잊어버려 나로서는 괴로운 일이기도 하였다. 나는 1961년 水原 鍊武臺 보수공사로 부터 조감독이란 직책을 받아 현장에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62년에 시작된 서울 南大門 重修工事に 감독관으로 참여하면서 부터 내 공부에 열중하게 되나 역시 林선생의 조수노릇은 계속되었다. 목수 일도, 단청 일도, 드잡이 일도 실제로 익혀야 한다는 그분의 지도방침에 따라 나는 현장에서 목수일도 배워야 하였고 드잡이일도 익혀야 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이 훈련은 내게 아주 유익한 것이었고 지금 내 주변에서 申木手라 부르는 연유가 되었다.

62년 남대문 중수공사 감독관을 끝으로 林선생은 공직에서 사퇴하고 설계사무소를 차린다. 나도 따라서 사퇴하고 林선생 사무소의 총무직을 맡는다. 태평로에 사무실을 열고 작업

에 착수하여 전국의 보수공사 설계를 도맡아 하였다.

나는 다시 공사감독관 일을 맡아야 한다는 권유에서 총무직을 사퇴하고石窟庵 보수공사의 감독관의 일을 하게 된다. 임선생의 설계에 따라 시공하는 소임을 맡은 것이다. 이 공사의都木手는 지금 人間文化財가 되신李光奎선생이었다.

임천선생은 62년에 불국사 安養門重建과 63년의 水原城·南漢山城 중수공사와 五臺山 上院寺의 銅鍾閣 신축공사의 설계를 계속하고 65년에는 경복궁의 여러 전각들의 실측작업을 맡아 한다. 그러던 중에 그분은 갑자기 作故한다. 한참 일할 연배에 일에서 떠나신 것이다. 선생은 1908년 2월 12일에 경기도 開城市 滿月洞 140번지에서 태어났다. 本名은 化鳳인데 泉이라 改名하였고 本貫은 沃野이다. 어려서는 滿州에서 자랐다. 돌아가신 뒤에 이분이 거쳐하시던 댁에 가서 소장하고 계신 건축도면들을 조사해 보

았다. 晋州 轟石樓, 無爲寺 極樂殿, 修德寺 大雄殿, 浮石寺 祖師堂, 梵鍾樓, 彰義門, 平壤의 大西門, 佛國寺의 安養門, 松林寺의 博塔 相輪, 傳燈寺 藥師殿, 成川 東明館, 江陵 客舍門, 慶州東京館, 서울 東廟, 抱州 文廟 大成殿, 感恩寺址, 塔의 實測圖, 聖住寺 五層石塔, 三陟의 竹西樓, 水原의 鍊武臺와 訪花隨柳亭, 長水의 被香亭, 華嚴寺 覺皇殿, 觀龍寺 藥師殿, 安國寺 大雄殿, 杜稷壇 表門, 浮石寺 東方寺址와 塔, 서울 南大門, 景福宮 交泰殿, 江陵의 鏡浦臺, 春川 文廟, 密陽 客舍, 江華 鍾閣, 淨水寺 法堂, 龍門寺 大藏殿, 開目寺 圓通殿, 開城南大門, 淸平寺 廻轉門, 道岬寺 解脫門, 全州 慶基殿 등 국내 우수한 중요건축물의 실측면도들이 거의 망라되어 있었다.

建築史의 공부는 광복 이후 林泉이라는 1대의 외동아들로 부터 시작되었다. 그의 슬하에는 申木手와 金東賢·俞門龍·金義中 등의 국립박물관

출신과 金周泰·崔容完 등의 南大門工事 출신들이 2代를 형성하고 있다. 많이 퍼진 셈이다. 이제 3代가 형성되고 있고 4代도 배태되고 있는 중이다. 한 사람의 힘이 별것 아니라 하지만 林선생 한 분으로 해서 한 분야가 개척되었다. 그리고 발전하고 있다.

丹青分野는 韓奭成선생을 行首로 하는 一團이 선생의 後裔(후예)로서의 업적을 계속하고 있다. 이 분야에 그 분이 남긴 足跡 또한 크다.

모두들 그 분을 회상하면 生前의 短軀와 유모어와 재주와 솜씨를 이야기한다. 여러가지 일화도 많고 얽힌 이야기도 많다. 그만큼 신비한 분이기도 하다는 뜻도 된다.

선생은 평생에 글을 조금 썼다. 『考古美術』잡지에 小品 몇 편을 발표하였을 뿐이나 『고고미술』에 실린 실측의 삽도는 적지 않다. 역시 그분은 쓰기보다는 그리는 일이 천분이었던 분이였다.

83年度 會員設計作品展 應募公告

1983年度 會員設計作品展示會가 오는 8월 8일부터 55일간 全國 7大都市를 순회하며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해와 같이 建設部長官賞 등 協會大賞作品選定을 겸한 作品展으로 이번 展示會에 應募하는 作品만이 후보작품이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應募要領을 公告하오니 會員 여러분 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요요요

● 대상작품

1980년부터 1983년 7월 현재까지 준공된 작품(단, 본회가 주최한 지난 전시회에 출품되지 아니한 작품)

● 제작방법

- 1) 판넬크기 / 90cm × 90cm (가로 × 세로)
- 2) 판넬제작요령
 - (1) 판넬에 기재한 내용이 순회 운송기간 중 훼손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예 : 유리·스치로 풀등 외부충격에 약한 재료는 사용을 피할 것)
 - (2) 전시중 벽면에 쉽게 걸 수 있도록 판넬후면에

튼튼한 고리를 부착할 것.

- (3) 판넬은 목재를 이용해서 튼튼하게 제작하고, 크기는 위에 지정한 크기내에서 응용 제작할 것.
- 3) 판넬수량 / 작품규모에 따라 1작품당 3개 이내로 할 것.
- 4) 공통사항 / 판넬 우측상단에 설계자 사진(명함판)을 부착하고 사무소명을 기재할 것.

● 응모마감

종합작품집 제작에 필요한, 판넬에 기재한 내용과 같은 사진·도면·설계개요

(원고지 2매 정도) 인물사진등을 별도로 제출할 것. (단, 작품명과 사무소명, 설계자명은 한글 및 영문으로 표기할 것)

작품집자료 : 7월 9일
판넬 : 7월 20일까지

● 기 타

- 1) 출품된 작품만이 수상 후보작품이 된다.
- 2) 포상내용 / 대상(건설부장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등 (논문부문 별도)

● 제출·문의처
협회 출판사업부
(723-9491~2)